

중국 100인승 여객기 합작 기초계약에 서명

중국 항공산업계와 에어버스 인더스트리, Finmeccanica, 싱가포르 테크놀로지스는 신형 100인승 제트 여객기를 위한 기본 계약에 서명했다. 2003년부터 운용될 이 쌍발 항공기는 AE 316으로 지정된 105승과 127인승 AE 317 모델의 개발에 이용될 것이다.

중국 항공우주 공급 조합(CASC)은 15억 달러에 달하는 10대의 에어버스 A320과 20대의 A321을 주문했다. CASC는 또한 5대의 ATR 72-210A 터보프롭기와 5대의 옵션을 주문했는데 이것은 중국에 대한 최초의 ATR 판매이다. ATR의 합작사인 이탈리아의 Alenia Aerospazio와 중국의 Zian이 추가 계약에 동의함에 따라 중국 내에서의 ATR 72의 후방 동체의 제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하는 동안 체결된 것이다.

미국 록히드, 러시아 '인터내셔널 스푸트니크'에 공동출자

미국 방위·우주기업인 록히드 마틴사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우주기관인 '인터내셔널 스푸

트니크'에 공동출자해 위성통신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출자회사는 98년말 첫번째 위성을 발사해 옛 소련과 동구, 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오는 2001년까지 매출액은 3억~5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협력사업은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종식후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움직임 중 하나다. 인터내셔널 스푸트니크는 옛 소련시절에 설립돼 현재 22개 가맹국에 위성통신을 제공하고 있다. 록히드사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위성제조기술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MD 익스플로러 헬기 회전날개 제어부품 결함

맥도널 더글러스사는 자사가 생산한 익스플로러 상업용 헬리콥터가 회전 날개를 제어하는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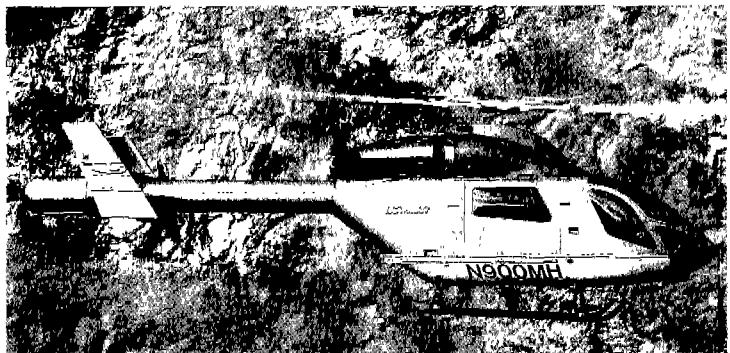
품에 결함을 보여 시정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이륙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맥도널 더글러스사 대변인은 고객이 탐지한 문제점을 정밀 조사한 결과 회전 날개를 제어하는 부품의 디자인이 잘못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사용되고 있는 31대의 익스플로러기를 이륙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해당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조종사가 이를 인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언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FAA EMB-120에 결빙 탐지기 설치 지시

FAA는 미국에 등록된 220대의 모든 Embraer EMB-120에 결빙 탐지기(ice detector)를 설



회전날개 제어장치에 설계 결함이 발견된 MD 익스플로러

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것은 지난 1월 미시건 주에서 발생한 Comair의 EMB-120 추락에 얼음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감항성 지시사항(airworthiness directive: AD)으로 제출된 이러한 조치는 세계의 중형 통근용 항공기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결빙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빙 테스트는 94년 10월 아메리칸 이글 ATR 72의 추락이후 수행되기 시작했다. 이 사고 이후 FAA는 ATR 72에 더 큰 얼음 제거기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 했다. 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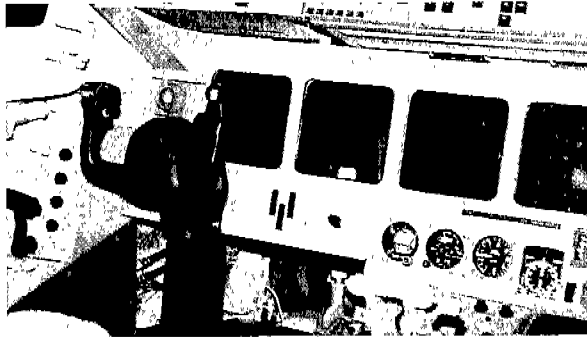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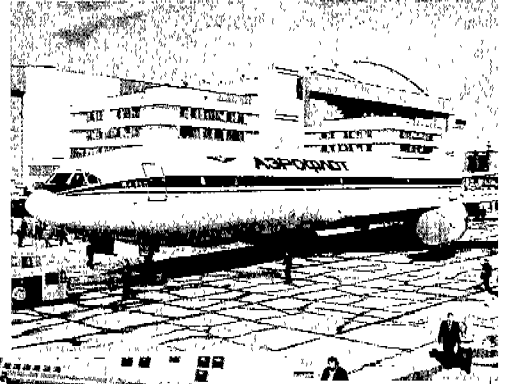
간에서 발생한 위의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국립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FAA는 이번의 조치가 조종사의 보고서와 EMB-120의 운항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면서 특히 결빙 탐지 시스템의 장착과 EMB-120 비행 안내문의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일류신 IL-96T 최초 비행 임박

러시아의 일류신 설계국(Ilyushin Design Bureau)은 지난 4월 26일 최초로 제작된

IL-96T 화물기를 선보였다. 일류신은 6월 파리 에어쇼에서 동 항공기를 전시할 예정이다. 동 화물기는 각각 37,000파운드 추력을 내는 4대의 플랫폼워트



급업체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은 일류신에 완성인도 방식(turnkey)으로 전자장비 일체를

니 PW2037 엔진과 콜린스(Collins)사의 전자장비를 장착하고 있다. 콜린스 항공 운송부문은 IL-96T와 승객용 개량형인 IL-96M의 부품 공급과 시스템 구성을 맡고 있다. 조종석에 장착된 6개의 8X8인치 디스플레이에는 주요 비행 정보, 항법 및 엔진 수치, 승무원 경보 시스템 등이 들어있다.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비행 관리 패널(flight management panel)은 자동조종/비행 지시 시스템을 제어한다. 이밖에도 중앙 관리 컴퓨터, 위성 통신, 일기 예보 레이더, 표준 지상 근접 경보시스템도 장착되어있다. 콜린스와 18개 부품공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콜린스사와 러시아 국가 과학 연구소는 IL-96의 주요 전자장비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입증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만든 바 있다.

러시아의 Aeroflot사는 화물 및 여객운송이 가능한 20대의 IL-96 항공기를 주문했다.

러 전투기 제작 미그社 도산 위기

러시아 최고의 군용기 생산업체인 미그사가 그릇된 구조조정 작업의 결과로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5월 27일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미그 전투기종을 생산해온 러시아 최고의 군수장비 제조업체인 미그사는 최근들어 한푼의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채 엄청난 부채만 짊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그사가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은 스스로 창안해낸 구조조정의 결과라는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미그사가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은 러시아 경제 전반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지난 90년초반 이후였다. 재정 부족과 이에따른 군예산 감축으로 러시아 공군의 주문이 말라버린 미그사는 수출에 사활을 걸었지만 각종 부품생산업체의 단가 인상으로 미그기 대당 판매가격이 2천3백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뛰는등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미그사는 96년 1월 크렘린의 재가를 받아 미그사와 기타 엔진·무기·항법장치 생산업체 등 12개 관련 업체를 총괄하는 지주회사 '마포(MAPO)'를 창설했다.

미그사의 이같은 통합조치는 재정·기술·조직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히려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12개 생산업체의 머리위에 얹혀진 거대

지주회사 마포사가 생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미그사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돈조차 시어머니격인 마포사에 떼어 먹히는 불운을 겪게됐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이처럼 러시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군장비생산업체를 재난에 빠뜨린 원흉은 바로 미그사의 주인인 정부의 그릇된 구상과 경영정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이제 러시아는 전투기 생산능력조차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Lynx 말레이시아에서 더 이상 환영 못받아

영국 무기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불만이 점점 쌓여감에 따라 슈퍼 링스(Super Lynx) 해군용 헬리콥터 계약을 얻고자 하는 GKN 웨스트랜드사는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의 관리들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말레이시아가 또다시 영국 상품은 맨 나중에 구매한다는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까지 두 번이나 이러한 정책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가장 최근의 경우 영국 언론이 말레이시아의 고위 정치

인이 부패했다는 폭로가 있는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영국 군수산업계의 한 소식통은 이러한 불만족은 일반적인 수준이다라고 말했으며, 말레이시아는 최근 인도된 GEC-Marine 프리깃함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말레이시아가 새로 구매한 28대의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BAe) 호크 100/200 훈련/경전투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대 항공기 미사일 수리 기한의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일부 관리들은 말레이시아가 또다시 영국 공급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거론하는 것이 단지 2천 9백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 요구를 강조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다. 금전적인 지불대신에 말레이시아 해군은 1-2대의 헬리콥터를 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드롭그라만, 록히드마틴의 JSF팀에 합류

노드롭그라만사가 록히드마틴의 JSF(Joint Strike Fighter) 팀에 합류했다. 록히드마틴은 이번 계약이 보잉사도 역시 제휴를 원하고 있는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BAe)와의 제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록히드마틴은 노드롭그라만사가 시스템 통합, 민간용 항공기의 하도급 제작, 잘 포착되지 않는 항공모함 적재기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드롭사는 BAe사와 함께 경쟁에서 탈락한 맥도널더글라스(MDC)팀의 일원이었다. 계획된 합병 사업과는 별개로 MDC사가 지난 1월 보잉사와 팀을 이룸에 따라 BAe와 노드롭사는 JSF 파트너가 없이 남게 되었다. 보잉사와 록히드사는 BAe사가 어느 팀에 합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늦추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BAe는 어느 팀이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큰가와 가장 큰 작업지분을 제공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중에 록히드와 노드롭사는 지금까지 모든 스텔스 항공기를 제작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JSF팀을 이끌고 있는 록히드마틴 전략 항공기 시스템의 회장 데인 헨콕은 적에게 포착되지 않는 항공기에 대한 그들의 경험은 JSF 사업비용을 줄이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드롭그라만의 민간기 제작사업은 록히드마틴이 제안한 JSF

기의 가격 타당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노드롭의 JSF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노드롭사는 보잉사가 JSF기를 제작하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용 공정을 사용하면서 현재 보잉 여객기의 주요 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합병 거래에 대한 허가가 내려질 때까지는 JSF팀에서 MDC는 일부 작업에 대해 제한을 받게될 것이라고 보잉사는 말했다. 맥도널더글라스가 보잉의 군용기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대의 JSF 개념실증기(concept-demonstrator)는 시애틀의 보잉사에서 제작될 것이다.

보잉/MD/CSA팀 Aero Vodochody의 전략적 파트너 선정

보잉 상용기 그룹, 맥도널더글

라스 에어로스페이스, CSA 체코 항공으로 구성된 합작사업팀이 체코의 군용 경 공격/훈련기 제작사 Aero Vodochody의 전략적(partner)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체코의 수상은 5월 7일 이 사실을 발표했으며, 보잉사 간부는 Aero Vodochody의 34-40% 지분을 인수한다는 입찰이 성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동사는 4,000대의 L-39 전투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에게는 훈련기 제작으로 유명한 업체이다.

이 합작사업을 이끌고 있는 보잉은 'Aero Vodochody의 기술적 능력과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보잉, 맥도널더글라스, CSA의 힘을 합침으로써 훌륭한 사업적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뛰어난 투자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과 노드롭그라만이 JSF 입찰을 위해 손을 잡았다